

중국 칠도예술: 도자장식과 생칠의 융합에 대한 선행적 분석

백연연¹, 손열¹, 김원석^{2*}, 노혜신², 김성민²

¹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²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교수

Chinese Porcelain Lacquer Painting Art : Primary Analysis on Convergence of Porcelain Decoration and Raw Lacquer

Bai JuanJuan¹, Sun Yue¹, Won-Suk Kim^{2*}, Hae-Sin Ro², Sung-Min Kim²

¹Doctoral Student, 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도예의 한 분야로서 생칠과 도기가 결합한 형태인 칠도의 공예기법 및 디자인적 융합에 대한 일차적 분석이다. 먼저 칠도의 역사 및 현재의 현황을 제시하고 칠도 장식의 기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기법이 가지는 특징을 간단히 분석하여 제시한다. 칠도는 도자가 가지는 성형 상의 자유로움과 칠예가 도자에 부여하는 표면의 안정성 및 그 표면 장식의 디자인 소재 및 방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 용기로서의 실용성 및 예술작품으로서의 미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만 일상용품으로 대량생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예술작품으로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일반 상품에도 미적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 수 있다.

주제어 : 도자, 생칠, 칠예, 칠도, 현대도자, 장식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is an primary analysis on convergence of porcelain lacquer painting art which is composed of porcelain art and raw lacquer technic. As a part of ceramic art, this study suggest 3 ways of porcelain lacquer decoration with understanding of its history and contemporary status. Lacquer technic gives stability for surface paintings and it also has various media to express its beauty. Porcelain lacquer decoration art contains artistic value and pragmatic purpose for daily life usage. These days, due to unavailability for mass production, it tends to be tried for art work purposes. However this artistic technic and value can be applied to porcelain goods, so that it will raise aesthetic pleasure and cultural diversity.

Key Words : Porcelain lacquer painting, Raw lacquer, Contemporary porcelain, Decoration art

1. 칠도의 개념

칠기와 도자기는 중국 고대 문명의 찬란한 상징이다. 칠예(漆藝)와 도자(陶瓷)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하며, 장인의 손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친연

대칠(天然大漆: 생옷칠의 중국식 표현)은 '생칠(生漆)'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강한 접착력은 재료의 표면에 방수, 단열, 방부 그리고 절연과 같은 안정성을 부여한다[1]. 옷칠의 이러한 특성은 목재나 도기의 표면을 보호하며, 시각적 아름다움이 뛰어나고 정교하다. 또한, 표면에 복잡한

*Corresponding Author : Won-Suk Kim(wskim@kongju.ac.kr)

Received July 8,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August 11,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장식 도안을 그릴 수 있어서 특색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것은 예술성과 실용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며 일상생활용품이나 공산품으로서의 생산에 유리한 점을 갖는다. 칠기(漆器)는 그래서 이미 상품이면서 예술품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류사회가 신석기에 진입하면서 이미 칠기(漆器)와 도기(陶器)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칠도(漆陶)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옷칠과 도자의 융합이다. 도자를 주체로 삼고 옷칠을 활용한 다양한 장식기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작품을 ‘칠도’라고 부른다[2].

도자와 옷칠의 결합은 유약이 발달하기 전 물을 흡수하는 토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칠도의 역사 및 현황에서 칠도의 배경을 알아보고 이어서 2장에서는 도자의 면(面)을 부각하는 칠도장식의 특징과 그 공예적 기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칠도의 역사 및 현황

중국은 칠기와 도기의 역사가 가장 긴 나라이다. 칠도는 도기 위에 옷칠로 장식하는 것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난다[3]. 고고학 발굴에서 가장 오래된 도기와 옷칠의 결합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절강성 양주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도태칠관이 그것이다. 회청색의 도질토기(陶質土器)의 표면에 옷칠로 장식하였고, 특히 아래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罐)의 목 부분에는 홍(紅), 황(黃) 두 가지 색으로 옷칠한 현문(絢文: 줄무늬)이 있다.



Fig. 1. Liangzhu pottery paint tank

춘추전국시대로 들어서면 도기의 현문이 중층으로 나타나고 기물의 유형이 점차 풍부해져서 호(壺)나 관(罐) 등도 보인다. 진한시대에 이르면 저온유(低溫釉)의 출현에 수반하여 유약을 섞고 유약을 바르는 기술이 끊임없

이 개발 개선되므로 도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칠도의 제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한나라 시대 이후 칠기의 일용품으로서의 지위는 도기로 점차 대체되고 태도 위에 옷칠하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4].

근대 이후 공업문명이 발전하며 칠기는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 전통적 대칠공예의 기반은 위축되었고, 옷칠의 예술적 발전 역시 정체되었다[5].

그래서 칠도는 그 재질적 특성과 특정한 예술적 배경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 규모와 수량은 도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발전을 거듭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칠기를 문화예술사업으로 중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7년 11월 18일부터 이듬해 1월 8일까지 푸젠성 척복(拓福) 미술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칠예 전시회, 2019년에 역시 푸젠성 민속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일 여성칠예전 등 옷칠공예 교류전에서 많은 우수한 칠도 작품들이 나왔다. 그리고 제재(題材), 형식, 기법 면에서 이전에 전시된 적이 없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근대의 우수한 중국 칠공예품을 수집해 놓은 『중국현대미술집전: 칠기편』에는 많은 우수한 칠기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6]. 칠도작품들이 계속해서 출품되고 있으며 상이한 예술부문은 모두 끊임없이 융합, 창조, 발전하고 있고 칠도 또한 부단한 발전 가운데 양호한 추세를 보인다.

3. 칠도장식의 특징

칠도예술은 칠예(漆藝)와 도예(陶藝)의 결합으로 그 장식적 아름다움은 그 재질과 공예미에서 나타난다. 여러 가지 무늬가 어우러지는 칠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도기의 조형과 그 유약이 만들어내는 색과 윤택의 미감을 가지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옷칠과 도기의 결합물 그것은 이미 예술의 시각에서 칠기와는 다른 것이며, 또한 도기와도 다르므로 특수한 재료 공예로 독특한 예술적 미감을 구현한다고 할 것이다.

3.1 칠도장식과 면(面)

칠도장식이 이루어지는 태체(胎體)로서 도자기는 도토(陶土)를 원재료로 삼고 각종 성형기법을 이용하여 모양을 빚은 후 구워서 이루어진다. 도토를 이용하므로 원재료의 성형이 쉽고 가공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다. 칠도장식은 도토가 자기(瓷器)로 소성되면서 비로소 나타난 면

에 이루어진다. 면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이다. 고승근은 면이 말로 표현되기는 어려우며 면에 어떤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7]. 미적 혹은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면은 면으로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면이라는 관점에서 도도로 소성되는 자기의 면과 다른 소재들을 비교해 보면, 목재는 직사각의 평면 이거나 물레에서 돌려 깎은 원통형의 사발이나 잔이라는 면 형태의 제한이 생긴다. 비교적 도대와 같은 용이한 조형성을 가진 비슷한 경우에는 사포(絲布: 면사와 견사의 혼방직물)와 같은 방직물을 성형을 위한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경우가 푸젠성의 탈태칠기이다. 사포라는 직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내는 경우처럼 공예품의 조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고품질의 것을 얻을 수 있다.

도도가 가지는 재료로서의 부드러움 때문에 자기는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면에 형태 또한 다양하다. 이어서 이러한 면(面)에 이루어지는 칠도장식의 공예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칠도장식의 공예기법

3.2.1 칠예연마기법과 도자장식디자인의 융합

『휴식록』에 의하면 중국고대의 칠예기법은 400여 가지 이상이다[8]. 그 가운데 화칠(畫漆)장식과 변도(變塗)장식 기법이 칠기연마기법 가운데 최고의 두 가지이다. 두 기법은 칠과 연마를 반복하여 겹겹이 층을 만들며 색을 입히고 광을 낸다. 그러므로 이상의 기법들은 연마법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변도장식기법은 두꺼운 옷칠을 하는 데 몇 가지 도구와 방법으로 옷칠 표면 위에 은(摠), 압(壓), 쇠(刷)등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요철을 주어 표면에 평평하지 않은 무늬를 형성한다. 혹은 매개물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차례 색칠(色漆)을 되풀이한 뒤 건조 시키고, 연마하기를 거듭하여 두꺼운 옷칠 면에 여러 가지 문양이 어우러져 풍부한 색채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9]. 화칠장식은 ‘휴도(髹塗)’라고 하는데 기물표면에 투명하게 옷칠을 하고 그 위에 부단히 옷칠을 더 하고 갈아내기를 끊임없이 반복한 뒤에 붓을 이용하여 직접 꽃무늬를 그린다. 또한, 이와는 달리 조칠(罩漆: 투명한 옷칠) 하지 않거나, 갈아내지 않거나 광을 내지 않고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기작품의 장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Fig. 2 참고).

이러한 방법을 모두 ‘묘회(描繪)’로 부른다. 묘회는 채회(彩繪)와 묘금(描金)으로 나눌 수 있다. 채회는 다시 묘칠채회(描漆彩繪), 묘유채회(描油彩繪), 간분채회(干紛彩繪)로 구분할 수 있고, 묘금에는 다시 첩금(貼金), 화금(畫金), 훈금(暈金)이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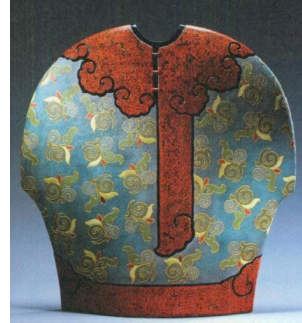


Fig. 2. Li Xinglong Li Varnished decorative work

위와 같은 방식들은 도자기 표면에 직접 요철을 내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유약을 사용하는 도자기의 제작과정과 비슷하다. 다만 옷칠로서 유약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옷칠 특유의 질감이나 색감을 살릴 수 있고 기능적으로는 방수성과 같은 옷칠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주의가 필요한 점은 도자기를 굽고 난 이후에는, 가령 표면에 유약이 덮여 있다고 한다면, 대칠이 부착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장식이 도기와 긴밀하게 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유약을 도포하기 전에 칠장식을 하는 것을 택한다[11].

3.2.2 칠예상감기법과 도자장식디자인의 융합

바탕이 되는 재료의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금은 등 다른 소재들을 새긴 틈에 끼워 넣어 장식하는 것을 통칭하여 상감(象嵌)이라고 하는데 도자기는 물론 목공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기법이다. 칠예의 상감기법으로 주요한 것은 금속상감(金屬鑲嵌), 전상감(銅鑲嵌), 단각상감(蛋殼鑲嵌) 등이다[12]. 이러한 기법들은 재료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각 기법이나 재료의 특징을 이용하여 도자의 유약 면이나 혹은 태토면 자체에 붙여 장식하므로 이전과는 다른 예술 효과를 넘어서서 장인의 창작 목적에 도달한다.

이러한 상감기법에서는 옷칠이 가지는 방수, 방부성은 물론 접착성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Materials used in mosaic techniques

item	description
oriental lacquer	crude lacquer, cashew lacquer, chemical lacquer, ect.
metal inlaid work	gold, silver, aluminium, tin lead, copper ect. using all kind of metal flakes
inlay with mother-of-pearl	using shells, valuable things: yèguānguó, ear shell, pearl ect.
inlay with egg shell	eggshell, duckeggshell, quaileggshell ect.
inlay with bone & stone	oxhorn, oxbone, camallbone ect.

이와 같은 상감의 재료들은 모두 각각의 물리적 특징과 표면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전은 오채(五彩)로 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고, 단각의 경우는 옷칠 자체가 내지 못하는 백색을 내어 조화를 이루며 단각 자체로는 거북 등의 균열 같은 패턴을 보여서 대체할 수 없는 미세한 것의 미감을 가지고 있다.



Fig. 3. Liang Yuan inlaid decorative works

3.2.3 칠예묘사기법과 도자장식디자인의 융합

옷칠공예의 묘사기법 중 묘금(墓禁)과 칠수선공예의 결합으로, 요즘 대단히 유행하고 있는 금선(金繕)공예와 같다. 이것은 파손된 도기의 수선과 장식을 함께 진행하는 기법으로써 기물이 다시 실용성과 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간결미를 강조하는 현대의 사조를 반영하여 시대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 금선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실용적 가치만이 아니라 미적 표현을 중시한다[13].



Fig. 4. Gold paint repair decorative works

앞에서 다룬 상감기법과 마찬가지로 금선은 생칠(生漆)을 접합제와 소형제로 사용하여 파손된 도기의 파편을 온전하게 수리하고 마지막에는 파손된 표면에 금장식을 붙이는 공예이다. 금선은 ‘가식별성, 가역전성, 최소개입’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14]. 미적인 차원에서는 파손된 형태가 가지는 우연성과 무작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칠과 금을 사용한 복원의 과정에서 우연하고 무작위였던 파손의 형태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모던한 느낌의 단순미나 절제미를 발산하기도 한다. 그래서 금선기술은 점차 장식기예의 하나로 변신하고 있고 나아가 사람들의 간결미에 대한 숭배를 구현하고 있다. 더욱이 금선에서는 사용되는 생칠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제작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근 몇 년 사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15].

4. 결론

현대의 도자디자인은 단순히 생활 식기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미의식을 집약시킨 하나의 예술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16].

도기와 칠은 현대예술에서 전통적 소재와 디자인의 결합이라는 측면으로 서로 융합되어 실험적인 예술로 탐색한 바 있다. 그리고, 찻잔과 같은 생활용품에 옷칠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에도 연구자는 이것이 주류적 예술형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자적인 매력의 예술표현 언어로서 우리에게 갖가지 결합적 사고를 제공하는데 머물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료의 융합 개념은 광범위하면서도 깊이를 가지며 동시에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지 않는 포용적인 것이다. 그 본질적인 것을 파악해야 비로소 칠도예술의 근본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다. 좋은 칠도의 각종 표현 재질과 그 공예기법은 부단히 창조와 실험을 진행하여 두 가지 재료를 최적의 평형점에서 종합 운용해

야 한다. 예를 들자면, 옷칠의 단열보온성을 다구(茶具)나 찬기(餐器)의 디자인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 Xinglong Li 's work



Fig. 6. a cup & coaster, TOUGA, Japan

도자재료의 물리적 특성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예술영역으로 개척해 간다면 예술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한 구현으로 칠공예의 독특한 장식을 도자기 상품에 녹여 넣어 전통적인 동양적 의미의 공예에서 창조되어 나온 Fig. 5의 도기작품의 사례와 같이 일반 상품에 다양한 문화적 소양과 풍부한 상품 유형을 주입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훌륭한 정신을 누리게 하여 현대생활에 새로운 색채를 불어 넣게 된다.

REFERENCES

[1] J. L. Ni. (2009). Making Crockery with Lacquer Work. Chongqing : SouthWestCollege of Education PbulishingHouse.

[2] S. M. Gōng. (2009). Discuss of Lacquer Pottry Art. Foshan : Foshan Ceramics.

[3] X. M. Féng. (2001). Chinse Ceramics, Shanghai : Shanghai Classics Publishing House.

[4] M. Huá. & L. Yáo. (1999). A History of Chinese Handcraft & Art. Tianjin : Tianjin Art Publishing House.

[5] S. G. Qiáo. (2005). Art of Lacquer Work. Zhejiang. : China Academy of Art Press.

[6] Committee of Chinese Modern Fine Art. (1998). Chinese Modern Fine Art complete works series. Beijing : China Architecture & Building Press.

[7] S. G. Ko. (2018). A study of modern metal craft using analytical formative beauty of line and surfa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01), 337-342. DOI : 10.14400/JDC.2018.16.1.337

[8] C. Huáng & Beijingguozhixueculture co. LTD.. (2016). xiushilù H.K. : Huáyūpublisher.

[9] H. L. Hé & S. Z. Táó. (1990). Lacquer Work & Decoration. Fujian : Fujian Art Pbulishing House.

[10] C. Dà & B. Dèng. (2016). jīnshàn jìn měi, xīwúyuèrén. *China Collective Economy*, 17, 66-71.

[11] Z. W. Zhāng. (2013). Praimary Analisys of Using the skill of Lacquer painting on Pottry Decoration. *Journal of people's literature*, 2013(24), 119-120.

[12] F. W. Shěn. A history of Chinese Lacquer painting & Art. Beijing :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13] Q. J. Wáng & X. Y. Wáng. (2008). A History of Chinese applied fine arts. Shanghai : China machine press.

[14] J. S. Yú. shuāngyihébi, Discuss of Joint of Porcelain and Lacquer Art *meiyushidai(+)*, 2015(6), 122-124.

[15] W. N. xià. (2013). Be compared with Lacquer painting and potrry in Traditionalapplied fine arts. *Modern Decoratin Theory* 2013(08).

[16] K. J. Park & J. w. Choi. (2017). A Study on Convergence Expression Using Transfer Printing Techniques in Contemporary Ceramic A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05), 333-338. DOI : 10.14400/JDC.2017.15.5.333

백 연 연(BAI JUANJUAN)

[정회원]



- 2010년 7월 : 중국 징더전도자기대학 과학기술예술학원 도자기예술디자인 전공(학사)
- 2013년 7월 : 중국 징더전도자기대학 디자인예술학원 전통도예와 현대도예 연구전공(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중국 복주대학교 사면공예미술학원(교사)
- 2018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과 세라믹 디자인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도자공예,디자인
- E-Mail : dongmingzyz@navel.com

손 열(SUN YUE)

[정회원]



- 2015년 6월 : 중국 푸젠성 푸저우대학 사면공예미술학원 조각과 도자기미술 전공(학사)
- 2018년 3월 : 중국 푸젠성 푸저우대학 사면공예미술학원 공예미술과 도자기 디자인전공(석사)
- 2018년 9월 ~ 현재 :공주대학교 조형 디자인과 세라믹디자인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도자공예,디자인
- E-Mail : sunyue2829@gmail.com

김 원 석(Won-Suk Kim)

[장학원]



- 1984년 8월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졸업(학사)
- 1988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과 요업디자인전공 졸업(석사)
- 1990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wskim@kongju.ac.kr

노 혜 신(Hae-Sin Ro)

[장학원]



- 198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도자예술전공(학사)
- 199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부 도자예술전공(석사)
- 1998년 10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hsro@kongju.ac.kr

김 성 민(Sung-Min Kim)

[장학원]



- 1995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예학과(학사)
- 1998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예학과(석사)
- 2006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문화 정책 및 기획

· E-Mail : min3812@kongju.ac.kr